

전경련 회장단 오찬 중 말씀

여러분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작년 한해 경제계 지도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전망만 무성한 가운데 아직 뚜렷이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화면이나 보도를 통해 본 여러분의 얼굴은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고 올해 경제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어둡게 보면 불안하고, 같은 사안이라도 밝게 보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밝은 전망으로 용기를 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여력이 전경련 여러분들이 가장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대선 자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선거도 있고 여러분도 선뜻 밝은 전망 갖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힘껏 극복해나갑시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주시면 우리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참고로 수렴하겠습니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활력을 찾고 안정을 찾아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